



전주대, 장학금 3300만원 지급

전주대학교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단장 고선우)은 지난 22일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3,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원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은 600억 원이 넘는 예산지원을 통해 첨단분야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2021년 전국 7개 대학을 선정, 전주대학교는 2027년까지 약 9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번 참여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지난 2학기 사업단에서 운영한 비교과 교육과정과 특강, 특별 활동 등 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른 실적을 AI 포인트로 환산 시행했다.

사업부단장인 송주환 교수는 "인공지능은 첨단분야의 학문이고 학교의 이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해외에서의 실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한 학기 진행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바이오진흥원, 2023년 제1차 소방훈련 실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임직원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3일 화재사건 예방 파란·대피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파란·대피훈련,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 화재 시 각 역할 임무수행, 소화전 방화훈련' 등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소방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피뿐만 아니라 소화설비 및 파란봉로를 숙지하여 실제 화재발생시 상황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종은 기자



김제 금산면, 난방비 부담세대 연탄나눔 행사

김제시 금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영종)와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단장 홍성열),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세)은 민관협력 의제사업의 일환으로 23일 '사랑의 연탄나눔 온기 36.5℃'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연탄나눔 봉사는 급등한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지닌 난방비저렴 5가구를 선정하여 1,0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다. 해당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2019년부터 벌써 5년째 금산면의 '동계 민관협력사업'으로 매년 진행되는 지역 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 이하 재단)은 22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이경은 강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강의는 '남성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기'라는 주제로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사례 위주 교육을 진행해 올바른 가치관 및 성인지 감수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재단 오영환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없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만학도 '사회적경제학 박사' 탄생

장순철 애플농산 대표, 우석대서 학위 취득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환갑을 넘긴 늦깎이 박사가 탄생했다.



23일 열린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사회적경제·경영학과 박사학위를 받는 장순철(61) (주)애플농산 대표가 주인공이다. 장 대표는 학사와 석사학위도 우석대학교에서 취득한 데 이어 박사학위까지 같은 학교에서 취득하며 모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과시했다.

1982년생인 장순철 대표는 전주 완산구에 위치한 육가공업체인 (주)애플농산을 운영하는 기업인이다. 평소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컸던 장 대표는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학문적 열정을 다시 불사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박사과정을 밟았다.

특히 1981년 우석대학교 화학과 입학, 1982년에는 교

육대학원 교육학석사(과학교육)를 취득한 장 대표는 31년 만에 다시 모교로 돌아와 사회적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한편 장 대표는 본인 소유의 기업 외에도 협동조합 '함께'의 전무이사와 누리푸드협동조합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주급식협동조합 대표도 맡고 있다.

장순철 대표는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사람중심경제'에 적극 공감하며 오래전부터 사회적경제 조직에 직접 몸담아왔고, 이론적·학문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면서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연구하는데 많은 공력을 들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위논문 제목이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는 결국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하며, 사회적기업가는 혁신성·진취성·위협감수성과 더불어 사회적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산불감시원 전문교육 실시

진안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3일 산악초타운에서 산불감시원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진안군 산불감시원 61명을 대상으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북지회 소속 전문 강사가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산불감시원은 산불에 대한 기초지식과 안전수칙 등을 습득했으며, 산불신고 단말기 등을 직접 실습해보면서 장비사용법을 터득했다.

교육을 수료한 산불감시원들은 각 읍·면에 배치돼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박춘선 산림과장은 "진안군은 산림비중이 78%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도 지킬 수 있도록 산불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익준 완산구청장, 시 통합협 임원진과 현안 논의

임익준 완산구청장은 전주시통합협의회 임원진들과 23일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방향과 행정업무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익준 완산구청장은 각 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통장의 권익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원활한 행정시책 추진과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 통마다 통장을 두고 있다. /김영태 기자

진안 안전면 미래 꿈나무 1일 외출동행... 마을복지계획 시작

진안군 안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는 23일 미래 꿈나무인 안전면 청소년들과 1일 외출동행을 가졌다.

안전면 지사협에서 추진하는 미래 꿈나무 1일 외출동행은 2023 마을복지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점심과 문화체험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지사협 위원들이 지역의 다문화, 한부모, 조부모,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을 추천해 개인별 참여의사를 밝힌 청소년들이며, 이번 외출동행은 서점에서 참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서적을 구입해 주고,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며 동물원을 찾는 등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외출동행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생들에게까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방학 중이라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는데 외출동행을 통해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어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안전면 지사협 서우석 위원장은 "미래 꿈나무 1일 외출동행을 시작으로 올해도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전면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병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선정

전북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에 선정됐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과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관으로 고난도 학대 아동의 치료, 의료자문, 광역지체단절 전담 의료기관의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며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전북대병원은 2022년 광역 아동학대 시범 활성화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시범사업 수행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의료사회사업팀을 중심으로 다학제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학대관찰과 치료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선정에 따라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치료 사례를 치료, 자문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진료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하고 학대조사·판단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며 치료와 함께 피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병원 내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변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위원장 정태오)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진료 및 사례 관리에 대한 원내외의 전문 활동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유희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치료자원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 주민설명회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산림토목사업 추진에 앞서 관내 산림토목사업 대상지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날 23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임도, 사방댐, 산지사방사업 등 산림토목사업의 효과와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업 실행 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국가예산 45억을 투입하여 산사태,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보존을 위한 사방사업 4개소(사방댐 3개소, 산지사방 1개소) 및 산림경관 기반시설 확충,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임도시설사업 9개소(산불진화임도 1.00km(1개소), 간선임도 8.19km(6개소), 작업임도 1.71km(1개소), 구조개량 0.68km(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시의회, 튀르키예·시리아 피해 성금 전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탤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마련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나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파란치, 식료품, 구호품 지원 등 현지의 피해 구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일 의장은 "지진피해를 겪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성금이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뜻깊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자동차제작안전협, 튀르키예·시리아 성금 기탁

한국고소자동차제작 안전협회(협회장 HREXN 부사장 김동열)는 지난 2월 6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을 돕기 위해 23일 1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고소자동차제작 안전협회는 안전인증 받은 이삿짐반송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크레인 등 제조업체 76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회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

김동열 협회장은 "예기치 못한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민원업무 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남원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원업무 대행업체와 관련 부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최경석 남원시장의 공약사항의 하나인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조직장비'의 일환으로, 주요 인허가부서 청구에 집중배치함에 따라 일선에서 복합민원의 현장조사, 설계, 민원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민원업무 대행업체와 남원시가 협력, 신속 민원처리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윈윈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